

신안 비금도 국내 첫 주민 주도 태양광사업

전남도 블루에너지 사업
200MW급 육상태양광 발전소
주민·기업 지분 참여
참여주민 20년간 1000억원
주민 1인당 연간 76만원 수익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6일 오전 신안군 비금면 이세돌 바둑기법관에서 열린 주민주도형 그린뉴딜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원 호반산업(주) 대표, 광정민 비금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이사장, 박우량 신안군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박용상 LS일렉트릭 대표.

국내 최초로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주민주도형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인 신안 비금도에 조성된다. 단지의 조성에 따른 토지임대료, 지분 투자 배당금 등으로 비금도 주민 1인당 연간 70여 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28일 "지난 26일 신안군, 비금 주민협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 등 투자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주도형 '그린뉴딜' 공동 사업개발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안 비금도 소재 이세돌 기념관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와 박우량 신안군수, 광정민 비금주민협동 조합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진원 호반산업 대표, 박용상 LS일렉트릭 대표, 박형신 해동건설 회장과 비금면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청정 자연자원인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신안 비금에 전라남도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인 '블루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전략적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안군은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핵심 전략사업이자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도 모델

인 8.2GW 초거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2030년까지 민간투자 45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40개 기업 유치와 함께 직·간접 일자리 11만 8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수 있는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발전소수익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될 '200MW 신안 비금주민태양광발전사업' 도비금주민협동조합 40%와 한국수력원자력 29.9%, 호반산업 15.1%, LS일렉트릭 12%, 해동건설이 3%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 구조로 국내 최초 주민주도형 대규모 태양광사업이다.

앞으로 참여주민에게는 토지 임대료로 22년간 462억원의 수익을 비롯 40% 지분 투자 배당금으로 20년간 470억원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비금면 전체 주민들에게도 1인당 연간 76만원의 수익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으로 산업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증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도민발전소 5GW를 조성할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도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서 14년만에 여성 부군수

이상심 과장 강진 부군수에...전남도 실·국장·부단체장 인사

전남도는 지난 26일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21명>

김경호 농축산식품국장 직무대리가 3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안병욱 보건복지국장이 도민안전실장, 김병주 순천부시장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영구 비서실장이 보건복지국장 직무대리로 각각 전보됐다.

지역배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가 한전공대 설립지원단장 직무대리, 김선호 기업도시 담당관이 공무원 교육원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긴다. 최성진 한전공대 설립지원단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파견된다.

준국장급에서는 손정식 영암부군수가 비서실장, 이건설 강진부군수는 대변인, 최형열 화순부군수는 기업도시 담당관, 정석호 완도부군수는 도립도서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부단체장으로 8명이 전출된다.

임채영 도민안전실장이 순천부시장, 김영신 대변인이 담양부군수, 김중갑 신성산업과장이 화순부군수, 이상심 섬해양정책과장이 강진부군수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강상구 예산담당관은 해남부군수, 박종필 안전정책과장은 영암부군수, 고동석 총무과장은 함평부군수, 봉진문 산림보전과장은 완도부군수로 각각 전출된다.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 전남에서 14년 만에 여성 이상심 과장이 발탁, 임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전남도는 이번 인사는 전남의 새천년 미래 비전인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한층 높이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과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실·국장 프로필

- ◇안병욱 도민안전실장 코로나 19 사태를 진두지휘하면서 꼼꼼하고 사려 깊은 대책을 내놔 호평을 받았다. 조직 상하에서 신뢰가 높고 맡은 업무마다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59) ▲보건복지국장 ▲대변인
-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 고시 출신으로 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으로 조직을 자극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 ▲나주(56) ▲순천부시장 ▲일자리정책실장
- ◇강영구 보건복지국장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할 수 있다. 지사의 신임이 두텁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졌다. ▲나주(54) ▲비서실장 ▲영광부군수
- ◇지역배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중앙부처의 경험을 살려 선전은 정책으로 새로운 시도를 즐긴다. 초대 총장을 선임하며 궤도에 오른 한전공대의 설립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완도(52) ▲기업도시담당관 ▲공무원교육원장
- ◇김선호 공무원교육원장 합리적이고 따뜻한 성품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해 공무원 교육원장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화순(58) ▲곡성부군수 ▲기업도시담당관
- ◇최성진 행정개발본부장 정해진 목표를 향해 조직을 보듬고 무리없이 이끌어 성과를 내는 능력을 지녔다. 위기를 겪었던 한전공대의 법인설립 허가까지 마치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완도(59) ▲해남부군수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광주 군 공항 소음도 조사지점 선정작업 “4차산업 대응위해 창업·벤처센터 필요”

광산구·서구, 민원 빈발지역 추천...보상금 지급 2022년 될 듯

광주 군 공항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28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군 공항 인접 지역에서 소음도 조사지점 선정 사전 작업을 착수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운대 군 공항 소음 영향권에 든 광산구와 서구가 국방부 협조 요청을 받아 조사지점 추천지를 추리는 중이다. 광산구와 서구는 소음 민원이 빈발한 지역을 목록으로 정리해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사지점은 용역업체 검토를 거쳐 국방부가 최종 선정한다. 본격적인 현장 조사는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가 수행한다.

소음 영향도는 군 항공기 이착륙 때 측정된 소음도에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7일 이상, 최소 2차례 이상 소음을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 절차에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2년부터 예상된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군 공항 주민은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혁신위, 광주형 클러스터 조성 등 27개 과제 권고

시장 직속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혁신과 도전의 창업·벤처 클러스터 조성'을 광주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28일 밝혔다.

혁신추진위는 창업·벤처 육성 전략 시행, 기능 중심 광주형 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마련 등 3대 기본 방향에 따라 27개 혁신과제를 권고한다.

특히 기관 간 역할을 통합·조정하는 플랫폼으로 I-PLEX,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중심이 돼 가칭 빛고을 혁신 창업 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을 선택했다"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창업·벤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는 2018년 11월 혁신추진위가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스마트 제조 혁신, 광주 복지 모델 구축, 저출산 대책,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정상화 등에 이은 열아홉 번째다.

혁신추진위는 시장혁신 권고문을 전달 받은 시로부터 3개월 이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고 그동안 혁신 권고·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연금이 33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국민연금을 믿고 지지해 준 국민 덕분에 대한민국의 노후를 지키는 연금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더 큰 혜택을 나눌 수 있게 국민연금이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
-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743조 원 (2020년 1월 기준)
- 최고 연금액 213만 원 (2020년 1월 기준)
-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 366만 원 (2020년 1월 기준)